

<http://dx.doi.org/10.15334/FLE.2017.24.3.237>

싱가포르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

정 나 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Jung, Narae. (2017). Korean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4(3), 237-260.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motivating and demotivating factors in learning Kor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taking Korean as unrestricted elective, and investigate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motivating and demotivating factors based on their Korean levels. Through the analysis of surveys on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it was found that their major motivating factors were the travel orientation and the cultural interest. These motivating factor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depending on the Korean levels. The major demotivating factors of Korean learners were the evaluation factor and the language factor. By interpreting open-ended responses, the competition factor was found as a demotivating factor. In addition, the competition factor and the language factor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level and the second level and above. This study suggests to motivate Korean learners by applying the major motivating factors to a class and weakening the major demotivating factors.

[Korean learning motivation/Korean learning demotivation/
Singapore/University students,
한국어 학습 동기/한국어 학습 탈동기/싱가포르/대학생]

* 이 논문은 한국학 석사 학위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방성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라 그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학교와 사설 어학원 등에 한국어 강좌가 다수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싱가포르 N대학교의 경우 2007년에 초급 한 학급으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총 6단계에 걸쳐 약 40학급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기 당 700명 이상의 학부생들이 한국어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류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류 열풍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세종학당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진, 2013). 또한 여러 연구에서 한류가 한국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정평, 2014; 장미선, 2012).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싱가포르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학습 동기는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Hadfield와 Dörnyei, 2013), 특히 영어 학습 동기는 국내외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분야이다. 영어는 국제어로서 많은 나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한국어와 다른 학습 동기가 존재할 것이다. 오문경(2013)은 한국어가 ‘문화어’로서 한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배우는 언어라고 영어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른 외국어와 차별화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특정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싱가포르 N대학교에서 한때 일본어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나 지금은 한국어의 수요가 가장 높아졌듯이, 언젠가 한국어도 다른 외국어에 의해 선호도가 밀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왜 한국어를 학습을 중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대학의 경우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습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 대학뿐만 아니라 방성원, 정명숙, 진정란(2015)의 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세종학당에서도 초급 단계에는 학생 수가 많지만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난이도와 같은 언

어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탈동기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라 그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제2언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제2언어 학습 동기 이론은 1950년대 Gardner(1959, 1985)의 사회교육모형에서 시작하여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을 거쳐 Dörnyei(2005, 2009)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로 흘러 왔다. Gardner는 제2언어를 배우는 동기(motivation)를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언어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망’, ‘동기 강도나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Gardner & Lalonde, 1985). 그리고 제2언어의 성공적인 습득은 통합적 동기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Gardner, 2011). 그러나 임상봉(2011)과 나은진(2003)의 국내 영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는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속하고자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는 직업적인 목표나 다른 실용적인 이유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Cook, 2008). 맹은경(2001)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도 도구적 동기가 높은 학생이 더 뛰어난 학습 성취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관해 김태영(2015)은 한국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이라 의사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는 반면 대학입시나 취업에 영어가 필요하여 통합적 동기보다 도구적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처럼 통합적 동기가 국제화된 세계에서 적용하기 힘들고 개념에 혼란이 있는 등 비판을 받게 되면서 Gardner의 학습 동기 이론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Dörnyei & Ushioda, 2013).

1980년대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동기의 유형을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나 목적에 기초하여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그 행동 자체가 본질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인 반면,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그 행동과 분리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Ryan & Deci, 2000). 이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외재적 동기의 조절 양식은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로 구체화된다. 이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어 학습 동기를 연구한 고희진(2011)은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확인된 조절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내적 동기에 가깝게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Kim, K. J.(2004)의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대학생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높고 내재적 동기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김현주(2014)에서는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영어는 취업이나 시험과 같은 외적 요인을 위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프랑스어나 한국어는 학습 자체의 즐거움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제2언어 학습 동기 연구를 포괄하고 심리학을 접목하여 Dörnyei(2005, 2009)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차계를 제시하였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제2언어 학습 경험으로 구성된다(Dörnyei & Ushioda, 2013).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미래에 되고 싶은 자아로 미래에 제2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의 자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열망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적 동기와 내재화된 도구적 동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아이다. 이는 좀 더 외재적이고 도구적인 동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언어 학습 경험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Gardner(1985)의 학습 상황에 대한 태도와 비슷하다. 세 요소 다 전통적인 이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학습 동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으로 각광받아 김용석(2017) 등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관련된 연구와 함께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aguchi, Magid와 Papi(2009)는 일본, 중국, 이란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연구하였는데, Dörnyei(2005)와 Clément과 Baker(2001), Gardner(1985)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10가지 학습 동기 요인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10가지 학습 동기 요인은 '1) 의도된 학습 노력, 2) 이상적 제2언어 자아, 3) 필연적 제2언어 자아, 4) 가족의 영향, 5) 도구성-장려, 6) 도구성-방해, 7)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8) 문화적 관심, 9)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태도, 10) 통합성'이다(Taguchi et al., 2009). 이 학습 동기 요인 설문지는 박지혜(2015)의 연구에 사용되었는데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구성-장려, 통합성, 문화적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더 구체적인 학습 동기 요인으로는 Ryan(2009)에서 일본인 영어 학습자의 동기 요인 조사를 위해 제시된 18가지 학습 동기 요인이 있다. 이는 '1) 문화적 관심, 2)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태도, 3) 도구성, 4) 국제적인 관계, 5) 외국어에 대한 관심, 6)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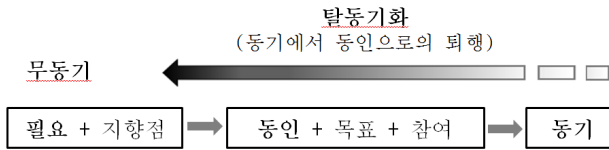
제적인 공감, 7) 동화의 두려움, 8) 자기 민족 중심주의, 9) 여행 지향성, 10) 영어 불안감, 11) 영어 학습 태도, 12) 환경, 13) 부모님의 격려, 14) 이상적 제2언어 자아, 15) 제2언어 자신감, 16) 모국어로의 의사소통 의지, 17) 영어로의 의사소통 의지, 18) 의도된 학습 노력'이다(Ryan, 2009).

이상과 같이 영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요인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는 그 주된 요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제2언어 학습 동기 요인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Ryan(2009)과 Taguchi 외(2009)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제2언어 학습 동기 요인인 문화적 관심,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태도, 도구성,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정하고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Ryan(2009)에 제시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여행 지향성을 추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제2언어 학습 탈동기에 관한 연구

1950년대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제2언어 학습 동기 이론과 달리 탈동기 이론은 1998년 Dörnyei의 연구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Dörnyei와 Ushioda(2013)는 동기는 사람들이 왜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는지, 얼마나 오래 그 행동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는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어떤 행동의 선택과 지속, 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학습자가 어떠한 이유로 흥미나 의지를 잃어버리면 탈동기화되었다고 하였다. 탈동기(demotivation)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의도나 지속적인 행동의 동기 원천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외부 요인과 관련이 있다(Dörnyei & Ushioda, 2013).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수준별 반편성에서 낮은 반에 배정되거나 수업이 이해가 안 될 때 교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흥미를 잃은 학습자가 여전히 한국어가 미래에 중요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탈동기는 동기의 결핍을 의미하는 무동기(amotivation)와 구분이 된다.

김태영(2015)은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이론과 유관 개념인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행동의 원인을 필요와 동인, 동기로 구분하면서 <그림 1>과 같이 탈동기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림 1> 필요, 동인, 동기, 탈동기화, 무동기의 개념 관계(김태영, 2015, p. 62)

<그림 1>을 한국어 학습과 연관하여 설명하자면,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필요(need)를 느끼는 단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지향점(object)을 만나면 동인(motive)이 된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국어를 언제 얼마나 공부하겠다는 목표(goal)를 가지고 실제 한국어 수업에 참여(participation)한다면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동기가 다시 동인, 목표, 참여로 분해된 후에 지향점도 사라져 막연히 필요만 느끼고 있을 때 무동기가 된다. 즉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있지만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다. 이 무동기와 대조적으로 탈동기는 동인과, 목표, 참여가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했거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학습 동기는 다시 동인으로 퇴화되고, 동인과 결합되어 있던 목표와 참여도 따로 떨어져진다. 이러한 점차적인 분리 과정이 탈동기화 과정인 것이다.

탈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Dörnyei와 Ushioda(2013)에 제시된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헝가리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교사의 성격, 헌신, 능력, 교수 방법, 2) 부적절한 학교 시설, 3) 실패 경험이나 성취감 부족으로 감소된 자신감, 4) 제2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5) 제2언어 학습의 강제성, 6) 학생들이 배우는 또 다른 외국어로부터의 간접 효과, 7)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8) 같은 반 친구들의 태도, 9)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9가지 탈동기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탈동기 요인은 이후 국내의 탈동기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연구(성현미, 2016; 이나윤, 2013; Kikuchi & Sakai, 2009; Kim, K. J., 2009)에서 인용되고 활용되었다.

Dörnyei와 Ushioda(2013)에 제시된 연구와 조금 다른 탈동기 요인을 제시한 연구로는 Falout, Elwood와 Hood(2009)가 있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크게 세 가지인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반응적 요인으로 탈동기 요인을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 아래에 세 가지씩 하위 요인을 두어 ‘1) 외재적 요인(교사의 접근 용이성, 문법-번역식 교수법, 수업의 수준), 2) 내재적 요인(자기 비하, 가치 부여, 자신감), 3) 반응적 요인(도움 구하기, 흥미를 찾기, 회피)’로 탈동기 요인을 제시하였다(Falout 외, 2009). 이 탈동기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Kim, C.(2015)의 한국 대학생의 영어 학습 탈동기 연구가 있으며 현주은과 김태영(2013)의

한국 직장인의 영어 학습 탈동기 연구에도 일부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탈동기 요인을 제시한 연구로는 최덕인과 김태영(2013)이 Dörnyei(1998)와 Falout과 Maruyama(2004), Sakai와 Kikuchi(2009)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학교 상황에 맞게 제시하였다. 8가지 탈동기 요인은 '1) 교수자의 부정적 영향, 2) 부적절한 학습 환경, 3) 학습자의 자신감 결여, 4) 목표언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 5) 외국어 학습의 강제성, 6) 영어 사용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7) 영어 학습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8) 학습 교재의 부적합성'이다(최덕인과 김태영, 2013). 이 탈동기 요인은 이후 국내 연구에 인용되어 이송희(2015)의 하위권 영어 학습자의 탈동기 연구와 박지혜(2015)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저하 요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탈동기 관련 연구에 영향력이 큰 Dörnyei(1998)와 Falout, Elwood와 Hood(2009),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탈동기 요인에서 한국어 학습과 관련 있는 요인을 통합하고 한국어 특성에 맞지 않는 요인은 제외하여 싱가포르 대학생의 주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싱가포르 N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습 동기와 탈동기로 나누어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학습 동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는 2016년 8월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급에서 5급을 수강하는 1~4학년 학생 중 312명에게 설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50.6%인 158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1급 50명, 2급 37명, 3급 40명, 4급 20명, 5급 11명이었으며, 여자는 132명, 남자는 26명이었다. 국적은 77.8%가 싱가포르였으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이었다.

탈동기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는 2016년 1월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수강했으나 8월 학기에 다음 단계 한국어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 학습 동기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졸업생과 교환 학생을 제외하여 총 324명에게 설문 조사 요청 이메일을 보냈으며, 39.8%인 129명이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는 1급 78명, 2급 26명, 3급 20명, 4급 5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다음 학기에 수강 예정이라고 썼거나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으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신청 못하였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하여 총 10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104명 중 여자가 77명,

남자가 27명이었으며, 국적은 싱가포르가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설문지로 학습 동기 요인과 탈동기 요인을 각각 다른 요인에 따른 하위 문항으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¹⁾ 이는 학습 동기와 탈동기가 거울 이미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태영, 2015).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가 여전히 문화적 관심은 있지만 한국어 교사나 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탈동기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도구는 학습 동기 요인 설문지와 탈동기 요인 설문지로 따로 제작되었다.

1)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설문지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설문지 작성을 위해 Ryan(2009)과 Taguchi 외 2인(2009)를 참고하여 '1) 문화적 관심, 2)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3) 도구성, 4) 이상적 제2언어 자아, 5) 외국어에 대한 관심, 6) 여행 지향성'으로 6가지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을 정하였다.

첫 번째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문화적 관심'이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 등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높은 문화적 관심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이는 Ryan(2009)과 Taguchi 외 2인(2009)의 공통된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인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태도'를 한국어 상황에 맞게 바꾼 것이다.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외에도 영어를 쓰는 집단이 많지만, 한국어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동기 요인을 정하였다. 이 요인은 한국어라는 나라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도구성'으로 취업이나 학문 등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동기 요인이다. Taguchi 외 2인(2009)에서는 이 도구성을 장려와 방해로 나누었지만, 한국어는 영어처럼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yan(2009)처럼 하나로 보았다. 도구성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동기 요인이다.

네 번째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로 Dörnyei(2009)는 이를

1) 지면 분량으로 인하여 연구에 쓰인 영어 설문지는 이 논문에 게재되지 못했다.

제2언어 학습에 있어 강력한 동기 요인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미래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섯 번째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여러 외국어 중의 하나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는 경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인은 '여행 지향성'이다. 학습자가 한국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다면 이 요인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설문지는 '1) 문화적 관심, 2)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3) 도구성, 4) 이상적 제2언어 자아, 5) 외국어에 대한 관심, 6) 여행 지향성'이라는 6가지 요인 아래 <표 1>과 같이 3~5개씩 하위 문항을 넣어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별 설문 내용

동기 요인	문항 및 설문 내용
1. 문화적 관심	3. 나는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 7. 나는 한국 TV프로그램을 좋아한다. 11. 나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17.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2.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길 원한다.
2.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5.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9.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13. 나는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23. 나는 한국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3. 도구성	1. 한국어 공부가 좋은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나중에 돈을 버는 데 유용할 것이므로 한국어 학습이 중요하다. 15. 한국에서 공부할 계획이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1.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다. 24. 대학교 한국어 과목에 낮은 성적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
4. 이상적 제2언어 자아	4. 한국에서 현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쓰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10.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한국어로 말하는 내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 18.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25. 가끔 내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상상한다.
5. 외국어에 대한 관심	2. 나는 많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12. 내가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면 그 현지어를 배우고 싶다. 16. 외국을 간다면 나는 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싶다. 20. 나는 외국어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공부할거라 생각한다.

-
- | | |
|-----------|--|
| 6. 여행 지향성 | 8. 나는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14. 한국어 공부에 한국 여행할 때 유용할 것이다.
19. 한국에 가보고 싶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중요하다. |
|-----------|--|
-

이 설문 문항은 Taguchi 외 2인(2009)와 Ryan(2009)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제시되었다. 설문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사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전체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786으로 .6이상이 나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 설문지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에 관한 설문지 작성을 위해 Dörnyei(1998)와 Falout 외 2인(2009),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탈동기 요인을 참고하여 '1) 교사 요인, 2) 교수 방법 요인, 3) 학습 환경 요인, 4) 학습자 요인, 5) 언어 요인, 6) 사회·문화적 요인, 7) 교재 요인, 8) 평가 요인'으로 8가지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을 정하였다.

첫 번째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교사 요인'이다. 이는 Dörnyei(1998)의 첫 번째 탈동기 요인에서 교사 요인과 교수 방법 요인을 분리한 것으로 Falout 외 2인(2009)에서 외재적 요인 아래 교사의 접근 용이성과 문법-번역식 수업을 분리한 점과 비슷하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성격은 교사의 교수 방법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 요인과 분리하여 '교수 방법 요인'을 두 번째 탈동기 요인으로 정하였다. Falout 외 2인(2009)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처럼 문법에 치중하는 수업 방식뿐만 아니라 수업에 시청각 자료 사용이 부족하거나 말하기 연습이 부족한 이유로 탈동기 요인이 될 수 있는 수업 방법적인 요소를 교수 방법 요인으로 보았다.

세 번째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학습 환경 요인'이다. 이는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부적절한 학습 환경과 영어 학습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즉 한국어 교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같은 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자기 수준과 맞지 않는 것이 탈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 탈동기 요인은 '학습자 요인'이다. 이는 Falout 외 2인(2009)의 내재적 요인과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학습자의 자신감 결여와 비슷한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자신감 하락이나 흥미 상실, 한국어 학습의 목적을 잃은 것을 학습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다섯 번째는 '언어 요인'으로 Dörnyei(1998)의 제2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학생들이 배우는 또 다른 외국어로부터의 간섭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다르다는 언어적 특징이나 한국어 자체의 문법이 복잡한 점, 한국어의 필요성

등이 언어 요인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은 한국인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탈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요인이다. 이는 Dörnyei(1998)의 제2언어 사용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영어 사용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외에 있는 한인 사회나 한국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감소 등이 이 탈동기 요인에 포함된다.

일곱 번째 탈동기 요인은 ‘교재 요인’이다. 이는 Dörnyei(1998)의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학습 교재의 부적합성과 같은 요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가 지루하거나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탈동기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탈동기 요인은 ‘평가 요인’이다. 이는 기존 세 연구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거나 평가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탈동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추가하였다. 상대 평가로 성적을 부여하는 대학에서는 학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국내 영어 학습 탈동기 연구에서도 평가를 탈동기 요인으로 본 연구가 있다. Kim, C.(2015)는 ‘시험 점수’를 대학생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여숙림과 이종복(2015)은 ‘영어 성적 평가 방식에의 불만족’을 포함하여 대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시험 점수나 평가 방식을 묶어 ‘평가 요인’으로 제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기존 세 연구의 탈동기 요인은 Dörnyei(1998)의 외국어 학습의 강제성과 Falout 외 2인(2009)의 반응적 요인이다.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는 영어처럼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언어가 아니라 학습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므로 강제성 요인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반응적 요인은 탈동기화가 된 후에 그에 반응하는 요인으로 탈동기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보여 제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으로 1) 교사 요인, 2) 교수 방법 요인, 3) 학습 환경 요인, 4) 학습자 요인, 5) 언어 요인, 6) 사회·문화적 요인, 7) 교재 요인, 8) 평가 요인’을 정하고 <표 2>와 같이 8가지 요인 아래 3~5개씩 하위 문항을 넣어 총 3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2>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별 설문 내용

탈동기 요인	문항 및 설문 내용
1. 교사 요인	3. 교사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9. 교사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
	17. 교사가 학생의 실수를 비웃는다.
	22.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26. 교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 교수 방법 요인	1. 대부분의 한국어 수업이 문법 위주다. 7.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적다. 13. 한국어 수업에 시청각 자료가 사용되지 않는다. 18. 숙제가 너무 많다. 32. 한국어 수업 진도가 너무 빠르다.
3. 학습 환경 요인	6. 한국어 교실의 학습 시설이 적절히 구비되지 않았다. 15.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다. 27. 같은 반 친구들의 한국어 수준이 내 수준과 다르다.
4. 학습자 요인	2.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었다. 10. 한국어 학습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16.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28. 한국어 학습 목표가 없다.
5. 언어 요인	4. 한국어 문법이 너무 복잡하다. 8.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 19. 한국어는 취업에 필요한 언어가 아니다. 23. 한국어는 더 배울 필요가 없다. 29. 한국어는 내가 아는 다른 언어들과 너무 다르다.
6. 사회·문화적 요인	21. 한국인 집단이 싫다. 25.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33.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다.
7. 교재 요인	5. 한국어 교재의 문장이 너무 길다. 12. 한국어 교재가 내 수준에 맞지 않다. 31. 한국어 교재 내용이 지루하다.
8. 평가 요인	11. 한국어 수업의 평가 방식이 싫다. 14.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낮은 성적을 받았다. 20. 한국어 듣기 시험이 너무 어렵다. 24. 쓰기(어휘, 문법, 독해, 쓰기) 시험이 너무 어렵다. 30. 나는 말하기 평가가 싫다.

이 설문 문항은 Sakai와 Kikuchi(2009)와 Kim, K. J.(2009)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일부 참고하였으며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작성하여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877로 .6이상 이 나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질적 연구도 보완하여 혼합 연구를 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나 국외 대학 한국어 학습자 상황에 맞는 탈동기 요인을 제시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동기 요인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었던 경험에 대해 쓰라’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6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이주일간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를 하기 위해 앞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를 통한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이메일로 주어진 링크를 따라 인터넷으로 설문에 참여하였고 학생들의 응답은 엑셀파일에 저장되었다. 모든 학생은 자발적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익명으로 참여하여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없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 결과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23버전의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정하고 순위를 도출하여 주된 학습 동기 요인과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탈동기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답안은 질적 연구에 활용되었다. 개방형 답안은 총 129명의 탈동기 요인 설문지 응답자 중 94명이 남겼으며 총 2,958 어절 수의 답안이 수집되었다. 이 중 탈동기와 관련 없는 답안을 남긴 15명을 제외하여 총 79명의 2,782 어절 수의 답안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양적 연구로 드러나지 않았던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1)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싱가포르 대학생의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을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 응답을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 점수로 순위를 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순위

	순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여행 지향성	1	3.00	5.00	4.60	0.45
문화적 관심	2	2.80	5.00	4.44	0.49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3	2.50	5.00	4.42	0.50
외국어에 대한 관심	4	2.75	5.00	4.38	0.50
이상적 제2언어 자아	5	1.75	5.00	3.69	0.72
도구성	6	1.40	4.40	2.94	0.65
학습 동기 요인 (전체)		2.37	4.90	4.08	0.55

<표 3>에서 학습 동기 요인의 전체 응답 평균은 5점 만점에 4.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매우 높은 한국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여행 지향성’과 ‘문화적 관심’으로 각각 4.60, 4.44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평균 4점 이상으로 주된 한국어 학습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적 제2언어자’요인의 평균은 3.69로 5번째이며, ‘도구성’요인이 2.94로 가장 낮은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밝혀졌다.

여행 지향성과 문화적 관심이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이라는 결과는 안선영(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안선영(2014)은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태국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 및 목적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 여행을 가서 활용’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두 연구의 대상 지역이 한류 열풍이 강한 곳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 학습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²⁾로 한국에 여행을 가고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및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 인해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사용되는 나라³⁾인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어 다른 외국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학습 동기 요인은 ‘도구성’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지민정(2015)의 미국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구에서 도구적 동기가 높게 나온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지민정(2015)의 연구 대상은 62%가 미국계 한국인으로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였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은 싱가포르의 대학생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대학생의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으로 여행 지향성과 문화적 관심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도구성이 가장 낮은 학습 동기 요인으로 밝혀진 것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성이 한국어

2) 한국관광공사(2016)의 2016년 관광통계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 수가 많은 나라는 중국-일본-대만-홍콩 순이며, 태국은 8위, 싱가포르는 14위를 기록하였다.

3)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2015)의 일반 가구 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가정에서 쓰이는 언어로 영어가 36.9%, 표준 중국어(Mandarin)가 34.9%, 중국 방언(Chinese dialect)이 12.2%, 말레이어(Malay)가 10.7%, 타밀어(Tamil)가 3.3%로 집계되었다.

학습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취업이나 학업 면에서 한국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는 방안으로 주된 학습 동기인 여행 지향성과 문화적 관심을 잘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수업 내용의 일부를 한국 여행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거나 수업 방법의 하나로 한국 드라마나 가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된 학습 동기 요인에 부합하는 한국어 수업을 한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높은 학습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

2)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동기 요인 차이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의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 단계를 1급과 2급 이상으로 두 단계로 나누었다. 이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는 1급과 한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 학습을 지속하기로 한 2급 이상의 학습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1급과 2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학습 동기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는 <표 4>와 같다.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라 학습 동기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표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상적 제2언어 자아’에서 2급 이상이 1급보다 평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점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장아남과 김영주(2015)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를 연구한 결과 초급보다 고급의 학습자가 더 큰 이상적 제2언어를 보였다는 것이다.

<표 4>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학습 동기 요인 집단통계량

학습 동기 요인	단계	응답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문화적 관심	1급	50	4.38	0.46	0.07
	2급 이상	108	4.46	0.50	0.05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1급	50	4.38	0.48	0.07
	2급 이상	108	4.44	0.50	0.05
도구성	1급	50	3.02	0.59	0.08
	2급 이상	108	2.90	0.68	0.07
이상적 제2언어 자아	1급	50	3.64	0.70	0.10
	2급 이상	108	3.71	0.73	0.07
외국어에 대한 관심	1급	50	4.30	0.57	0.08
	2급 이상	108	4.41	0.47	0.05
여행 지향성	1급	50	4.57	0.44	0.06
	2급 이상	108	4.62	0.46	0.04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표 4>에서 6가지 학습 동기 요인 중 도구성만이 1급에서 2급 이상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 단계가 높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업이나 직업을 위한 도구로 한국어 학습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

1) 주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

싱가포르 대학생의 주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을 알아보려고 설문 조사 응답을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 점수로 순위를 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의 전체 응답 평균은 5점 만점에 2.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탈동기화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평가 요인’과 ‘언어 요인’으로 각각 평균 3.08, 3.04로 나타났다. 이 외의 탈동기 요인은 평균 3점 이하로 주된 탈동기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교재 요인, 교사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낮게 나와 탈동기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교사 요인이 초·중·고·대학교에서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선미와 김신혜(2014)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국외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평가 요인과 언어 요인이 주된 탈동기 요인이지만 평가를 어렵게 내고 복잡한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아주 낮은 탈동기 요인으로 드러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성현미(2016)에서는 교재 요인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가장 주된 탈동기 요인이라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재 요인이 낮게 나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탈동기 요인은 학습 언어나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 순위

	순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가 요인	1	1.60	4.80	3.08	0.72
언어 요인	2	1.00	4.00	3.04	0.55
학습 환경 요인	3	1.33	4.33	2.76	0.64
교수 방법 요인	4	1.40	4.20	2.76	0.47
학습자 요인	5	1.00	4.50	2.35	0.77
교재 요인	6	1.00	3.67	2.22	0.58
교사 요인	7	1.00	2.80	1.58	0.41
사회·문화적 요인	8	1.00	3.33	1.37	0.49
탈동기 요인 (전체)				2.39	0.58

또한 문화적 관심 및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높은 학습 동기 요인으로 나타나 반면 사회·문화적 요인은 가장 낮은 탈동기 요인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학습 동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탈동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 차이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학습 동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 단계를 1급과 2급 이상으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의 *t*검정 결과를 보면, ‘학습 환경 요인’만 유의확률(양측)이 .01<.05로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환경 요인에서 1급의 설문 조사 응답 평균은 2.88, 2급 이상은 2.56으로 1급에서 탈동기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습 환경 요인의 하위 문항 3가지의 응답 평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같은 반 친구들의 한국어 수준이 내 수준과 다르다’라는 문항에서 1급은 평균 3.79, 2급 이상은 2.97로 차이가 있었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이 문항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급의 학습자들이 2급 이상의 학습자들보다 같은 반 친구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른 점으로 인해 탈동기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급 이상의 경우 이전 학습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이 진급을 하므로 그 시작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급의 경우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만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끔 한국어를 조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1급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미 배우고 온 학생들보다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고 그 학생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쌓여 이것이 탈동기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본다.

<표 6>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 차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i>t</i> 검정				
	<i>F</i>	유의 확률	<i>t</i>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교사 요인	.59	.44	-.69	102	.49	-.06	.08
교수 방법 요인	1.19	.28	-.49	102	.63	-.05	.10
학습 환경 요인	1.34	.25	2.48	102	.01	.32	.13
학습자 요인	1.68	.20	1.51	102	.14	.24	.16

언어 요인	4.58	.03	-.83	102	.41	-.08	.10
사회·문화적 요인	.01	.93	-.19	102	.85	-.02	.10
교재 요인	.00	.98	-.83	102	.41	-.10	.12
평가 요인	.75	.39	1.27	102	.21	.18	.15

3) 탈동기 요인에 대한 개방형 답안 해석

설문지의 선택형 문항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탈동기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개방형 답안 해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었던 경험에 대해 쓰라’는 질문에 대한 답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을 요약하여 탈동기 요인을 범주화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개방형 답안 예시와 탈동기 요인

개방형 답안 예시	탈동기 요인
상대평가로 인하여 A를 받기가 어렵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 요인
선행지식이 있는 학습자가 많다.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가 더 어려워진다.	언어 요인
교양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없다.	
전공과목과 시간표가 겹쳐서 들을 수 없다.	기타

<표 7>에서 새로운 탈동기 요인으로 ‘경쟁 요인’이 추가되었다. 경쟁 요인은 양적 연구 결과로 가장 주된 탈동기 요인으로 밝혀진 평가 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가 요인은 한국어 평가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에 비해 낮게 받은 성적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는 반면, 경쟁 요인은 상대평가로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를 통해 학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같이 항상 다른 학습자의 존재가 가정된다. 김태영과 이유진(2015)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영어 시험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이자 탈동기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요인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설문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방형 답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A학점을 받기가 힘들고 같은 반 학습자와의 경쟁이 심해서 탈동기화되었다고 쓴 경우가 많아 이를 경쟁 요인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이 경쟁 요인은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도 드러냈다. 같은 반에 선행지식이 있는 학습자가 많아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쓴 답안이 많았는데, 이 선행지식은 1급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1급은 한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만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예전에 배운 학생들이 들어와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양적 연구에서도 같은 반 친구들의 한국어 수준이 내 수준과 다르다는 점이 1급에서 더 큰 탈동기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싱가포르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 중에서 특히 1급에서 2급으로 진급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쟁 요인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습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어 요인’은 이미 양적 연구를 통해 주된 탈동기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언어 요인은 한국어 문법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탈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양적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1급과 2급의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크다고 들었다’와 같은 개방형 답안을 통해 그 어렵고 복잡한 정도가 한국어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심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기타’는 탈동기 요인으로 볼 수 없으나 학생들이 한국어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답안들이었다. 주로 한국어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과목과 시간표가 겹치면 들을 수 없거나 자신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 학점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어를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더 이상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타 답안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싱가포르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된 탈동기 요인인 평가 요인과 경쟁 요인을 야기하는 상대 평가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따르는 평가 정책으로 연구자의 제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평가와 그로 인한 경쟁에서 학습자들의 탈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쟁은 높은 탈동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학습 동기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도 평가와 경쟁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탈동기 요인이 되므로 최대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여 경쟁이 탈동기 요인이 아닌 동기 요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 반에 모이도록 수준별 분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급의 경우는 선행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조금 배운 학생들을 무조건 수강 못하게 하기 보다는 이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해서 2급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학 특강으로 2급 준비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지식이 조금 있는 학생들이 2급에 진급할 수 있게 돕는다면 선행 학습 경험을 밝히지 않고 1급으로 들어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

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주된 탈동기 요인인 언어 요인의 경우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점이 탈동기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도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언어가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단계에 따라 그 어려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음 단계에 진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동기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어려움의 격차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 단계와 단계 사이에 중간 단계를 만들어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단계 간의 이동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격차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상과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학습자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매 학기 1급에는 많은 학생이 몰려들면서 2급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과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학습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 가장 주된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은 여행 지향성과 문화적 관심이며 그 외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주된 학습 동기 요인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학습 동기 요인의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주된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양적 연구 결과 평가 요인과 언어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질적 연구 결과 경쟁 요인이 탈동기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한국어 학습 단계에 따른 탈동기 요인의 차이는 학습 환경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형 답안 분석을 통해 1급에서 선행지식이 있는 학습자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 2급 이상보다 더 탈동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어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언어 요인도 학습 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학습 동기와 탈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싱가포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밝힌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지속시키고 탈동기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았다. 하지만 방학 특강이나 중간 단계 강좌 개설과 같은 방안들은 대학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학교 측의 동의와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등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

움이 있다.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연구의 대상이 싱가포르의 한 대학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밝힌다면 그에 맞게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고 탈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어 교육이 한류의 영향으로 잠시 유행처럼 그 규모가 커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형진. (2011).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동기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용석. (2017). 이상적 L2 자아 측정 도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4(1), 233-259.
- 김태영, 이유진. (2013). 자서전적 에세이를 통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탈동기. *응용언어학*, 29(1), 37-68.
- 김태영. (2015). *한국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현주. (2014). 프랑스어와 영어 학습자의 내재적 학습 동기 변수와 인식 비교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1(4), 277-306.
- 나은진. (2003). 중학생들의 영어 숙달도와 동기 및 사회적 거리와의 상관관계. *영어교육연구*, 15(3), 223-251.
- 맹은경. (2001). 동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2(2), 157-170.
- 박지혜. (2015). *특성화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및 동기 저하요인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박혜진. (2013). *세종학당 학습자 96%, '친구에게 세종학당 소개하고 싶다'*(보도자료). 월드와이드웹: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95635>에서 2016년 5월 29일에 검색했음.
- 방성원, 정명숙, 진정란. (2015).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재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세종학당재단.
- 성현미. (2016). *중학교 영어학습자들의 탈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안선영. (2014). *여행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국외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
- 여숙림, 이종복. (2015).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척도 개발*. *현대영어영문*

- 학, 59(1), 211-31.
- 오문경. (2013).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 연구: 한류 기반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이나운. (2013). *성별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화 요인 분석: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이선미, 김신혜. (2014).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동기 및 탈동기 요인. *언어과학 연구*, 68, 287-312.
- 이송희. (2015). *하위권 영어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이정평. (2014). *한국어 학습과 한류 간 관계성에 관한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임상봉. (2011). 초등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과 지속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 연구. *초등영어교육*, 7(2), 122-163.
- 장미선. (2012). *한류 문화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부산.
- 장아남, 김영주. (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 연구-학습 동기 및 외국어 불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7, 223-258.
- 지민정. (201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구. *한국어교육*, 26(2), 213-238.
- 최덕인, 김태영. (2013). 한국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비교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9(2), 245-274.
- 한국관광공사. (2016). *2016년 8월 한국관광통계-주요국가통계*. 월드와이드웹: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7104&isNotice=false&instanceId=294&rnum=3>에서 2016년 10월 8일 검색했음.
- 현주은, 김태영. (2013). 한국 직장인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화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0(2), 163-188.
- Clément, R. & Baker, S.C. (2001). *Measure in social aspects of L2 acquisition and use: social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ion* (Technical report). Ottawa: University of Ottawa.
- Cook, V. (2008).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4th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 Ushioda, E. (2013). *Teaching and research in motivation*. Harlow: Longman.
- Falout, J. & Maruyama, M. (2004). A comparative study of proficiency and learner demotivation. *The language Teacher*, 28(8), 3-9.
- Falout, J., Elwood, J., & Hood, M. (2009). Demotivation: Affective states and learning outcomes. *System*, 37(3), 403-417.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Gardner, R. C., & Lambert, W. E. (1959).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266-272.
- Gardner, R. C., & Lalonde, R. N. (1985, Augus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93r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 Gardner, R. C. (2011).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월드와이드웹: <https://search.proquest.com/openview/70144f9689c896736b839e94f1897a57/1?pq-origsite=gscholar&cbl=43874>에서 2016년 10월 8일 검색했음.
- Hadfield, J. & Dörnyei, Z. (2013). *Motivation learning*. Harlow: Pearson Education.
- Kikuchi Ko. & Sakai, H. (2009). Japanese Learners' demotivation to study English: A survey study. *JALTJournal*, 31(2), 183-204.
- Kim, C. (2015). *Demotivational factors influencing compulsory English language learn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an EFL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J. (2004). A structural model for English achievement based on motivation, gender, and academic major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0(1), 59-80.
- Kim, K. J.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tivation in secondary English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4), 75-94.
- Ryan, S. (2009). Self and identity in L2 motivation in Japan: The ideal L2 self and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120-143).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Sakai, H., & Kikuchi, K. (2009). An analysis of demotivators in the EFL classroom. *System, 37*(1), 57-69.
- Taguchi, T., Magid, M. & Papi, M.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mong Japanese, Chinese and Iranian learners of English: A comparative study.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66-97).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Korean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정나래(Narae Ju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School of Humanities

Centre for Modern Languages

#04-57, 14 Nanyang Drive, Singapore 637332

Tel: +65 6790-4895

E-mail: naraejung@ntu.edu.sg

Received in June 30, 2017

Reviewed in July 25,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ugust 15, 2017